

대학 교양교육으로서의 한국고전문학교육의 과제

김종철*

<차 례>

1. 머리말
2. 대학 교양교육의 위상과 고전문학교육
3. 대학 교양교육 과목으로서의 한국고전문학교육의 과제
4. 마무리

<국문초록>

대학 교양교육으로서의 고전문학교육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학 학부 교육의 정체성과 교양교육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 학부 교육을 직업교육으로 보거나, 대학원 교육의 예비 단계로 보거나, 교양교육을 학부 전공교육의 기초 단계로 볼 경우 교양교육의 정체성을 확보되지 않는다. 아울러 기본적으로 교양교육인 고등학교 교육과의 연계성과 차별성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역시 대학 교양교육의 정체성 구현은 물론 수월성도 이룰 수 없게 된다. 대학 교양교육이 미래 사회와 세계의 다양한 변화에 합리적이고도 창의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간을 길러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고전문학교육 역시 주체성을 가지고 삶과 세계의 다양한 과제를 지적으로 세련되게 해결하는 능력과 타자를 존중하고 타자와 공존하는 태도를 갖추도록 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민족문화의 고전(古典)과 정전(正典)을 확립하는 과제를 수행해야 하며, 실제 교육에서는 고전문학을 인류 보편성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식이 요청된다. 아울러 대학 교양교육으로서 고전문학교육의 목표로 학습자로 하여금 깨닫는 즐거움을 체험케 하여 장기적으로는 전통문화 향유를 주도하는 시민문화를 형성하는 것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대학, 교양교육, 고전, 한국고전문학, 보편성

* 서울대 국어교육과

1. 머리말

대학 교양교육의 일환으로서의 한국 고전문학교육을 논의하는 일은 한편으로는 그 전개 과정이 분명히 예측되는 것이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다지 생산적이지 못한 결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예측 가능하다는 것은 대학에 따라 과목 수 또는 과목의 내용에 차이는 있으나 고전문학교육이 대학 교양교육의 일환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논의는 기왕의 고전문학교육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쪽으로 나아가면 되기 때문이다. 반면 비생산적이라는 것은 대학 교양교육의 논의는 대학 교육 개선이나 개혁 논의에서 단골 메뉴로 등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제대로 된 개선이나 개혁 방안을 도출한 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이 비생산성과 관련하여 대학의 교양교육 개선이나 개혁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온 사실과 개혁을 위한 논의가 내실 있는 교육을 지향하기보다 제도와 운영 방식에 치중되어 온 점을 우선 지적해 둘 필요가 있다. 교양교육 개선에 대한 논의가 얼마나 빈번하게 전개되었는지는 서울대학교의 사례만 보아도 알 수 있다. 1979년부터 1989년까지 무려 7번의 개선이나 개편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 내용의 발전이나 적합성은 차치하고, 10년 동안 7번이나 연구를 해야 할 정도로 교양교육이 수시로 변화되어야 한다면 도대체 그 교양이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교양교육을 위한 대학의 제도나 운영 방식 또한 지속성을 가진 적이 없다. 역시 서울대학교의 경우를 보면 10년을 넘게 지속된 사례가 거의 없다. 이는 교양교육이 아직 그 정체성을 획득하지 못했음을 웅변으로 말해주는 것이다.¹⁾

1) 이 시기 서울대학교의 교양교육 논의의 역사는 장희익 외, 『교양교육의 개선방안 연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근본적으로는 대학(학부를 말함. 이하 동일)의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데 있다. 여러 단과대학은 물론 대학원과 전문대학원으로 구성된 종합대학교 체제가 되면서 더욱 대학 교육의 정체성은 모호해지고, 나아가 고등학교 교육과의 관계에서도 연계성과 차별성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일반 기업들은 대학 졸업자들이 기업의 연수 교육을 거치지 않아도 직무에 임할 수 있도록 직업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전공교육은 물론 교양교육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고전문학교육이 대학 교양교육의 주요 일원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일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교양교육이 담당해야 하는 역할을 고전문학교육이 훌륭하게 수행해 낼 수 있는 방향과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전통적으로 교양교육은 인문교육이 중심을 이루어왔기 때문에 고전문학교육이 교양교육의 일원이 되는 일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고전문학에 기반을 둔 교양 과목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교양 교육에서 그 역할을 확대하고 위상을 강화하는 것은 그러므로 고전문학 학계로서는 매우 당연하고 바람직한 일로 보일 수 있다. 예컨대 고전문학의 대표 작품이 ‘고전(古典: Classic)’으로서 교양교육의 과목으로 설정되

구], 서울대학교, 1995, 부록 II(교양교육 개선방안 연구사) 참조. 제도와 운영 방식의 단기적 변천은 같은 책, 부록 I(서울대학교 교양교육의 변천과정)과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교양교육 60년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8, 참조.

한편 서울대학교는 교양교육에 지속적인 관심을 경주하여 왔는데, 특히 외국의 경험을 수용하기 위해 방문 및 조사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그 성과들은 다음과 같다. 서울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영국·독일·프랑스의 교육제도와 교양교육 현황』, 서울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3; 서울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프랑스의 대학교육 - 교과과정과 교양교육』, 서울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5; 서울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일본의 고등교육 - 교양교육과 전문교육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5. 이와 같은 연구로 대표적으로 김정오 외, 『지성·덕성·리더십 함양을 위한 대학교양교육 개선 방안』,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최미리, 『미국과 한국 대학의 교양교육 비교』, 양서원, 2001 등을 들 수 있다.

거나 대학생이면 누구나 읽어야 할 ‘정전(正典:Canon)’으로서 채택된 바가 별로 없다는 점 등을 반성해보면 고전문학 학계가 할 일은 적지 않다. 그러나 고전문학교육이 대학의 교양교육으로 자리 잡는 데에는 고려해야 할 사항과 넘어야 할 경계가 적지 않다. 대학 자체의 정체성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유동적인 점도 고려해야 하지만, 우리의 경우 앞에서 언급했듯이 고등학교 교육과 대학 교육의 연계성과 차별성도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다. 이 후자의 문제는 대학에서의 고전문학교육이 교양교육으로 수행될 때의 출발점 설정과 관계가 있다. 고등학교 단계에서 이루어졌어야 할 교육이 대학의 교양교육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려 사항과 함께 민족문학의 관점으로 연구하고 평가해온 고전문학을 대학의 교양교육의 제재로 삼을 때 보편성을 추구하는 대학의 성격에 맞게 시각을 정립하고 의제(議題)를 설정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즉 민족문학의 성격은 그것대로 유지한 채 우리 고전문학을 세계 보편성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경계의 초월을 달성해야 하는 것이다.

2. 대학 교양교육의 위상과 고전문학교육

1) 교양 교육과 대학 학부 교육의 정체성

국내외를 막론하고 대학 교양교육 논의가 거듭된 까닭은 대학의 성격, 위상, 역할 등이 시대에 따라 변화해왔기 때문이다. 구미의 경우 19세기 말엽 이래 대학의 양적 팽창, 전문대학원을 거느린 종합대학교(University) 체제의 등장, 대학의 사회적 역할의 다변화, 전지구적 자본주의의 확대에 인한 대학의 시장 지향 등은 전통적인 자유교육(liberal education) 중심의 교양교육의 변화를 불가피하게 했다.²⁾ 한국의 대학들은 훌륭한 문(文)·사

(史)·철(哲) 중심의 자유교육 전통을 지녀왔으면서도 그것을 근대 대학의 교양교육으로 제대로 계승하지 못한 상태에서 구미 대학이 장기간에 걸쳐 대면해 왔던 과제들을 아주 짧은 기간에 직면해야 했던 특수성이 있다. 여 하튼 대학의 내외적인 변화에 따른 교양교육의 새로운 모색은 교양교육이 변화하는 세계에 대응하는 대학의 정체성과 관련된 것임을 말해준다.

대학에서의 교양교육 논의는 처음부터 대학의 정체성 확립과 관련이 있었다. 영국의 산업화와 대학의 급격한 증대 및 대학의 직업교육 강화 주장과 이에 맞선 전문 연구자 양성 논의에 대하여 어떤 실제적 목적을 위한 교육이 아닌 인간의 고양을 위한 교육으로서 ‘liberal education’의 개념이 등장한 것도 대학의 정체성 인식과 관련되어 있다.³⁾ 이러한 대학의 정체성을 둘러싼 논란은 시대와 사회의 변화, 대학의 구성과 역할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왔는데, 예컨대 미국 컬럼비아대학을 중심으로 하버드대학과 시카고대학의 20세기 전반기 교양교육을 검토한 다니엘 벨의 보고서를 보면, 대학의 교양교육은 대학의 정체성 확립과 맞물려 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즉 한편으로는 전문대학원의 예비학교로 전략해가는 대학의 위상과 대학 입학생이 인종과 출신 배경에서 다양해지고 또 양적으로 팽창하는 현실에 직면하여 학부 학생을 대학의 중심으로 인식하고 이들의 직업을 위한 것이 아닌 이들의 삶의 고양에 영향을 끼치는 교육으로서 교양교육을 모색했는데,⁴⁾ 이는 대학 학부는 전문대학원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 교육 기구로서 특히 학생을 위해 있는 것이며, 교양교육은 이 학생들의 장래 직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

2) 서구 대학의 역사에 대한 개괄은 다음을 참고했다.

H. 그룬트만, 이광주 역, 『중세대학의 기원』, 탐구당, 1982; 김영환, 『서양의 대학: 역사와 이념』, 이기백 편, 『한국사시민강좌』, 일조각, 1996

3) 이에 대해서는 최재서 편, 『교양론』, 박영사, 1963, 40~49면 참조

4) 다니엘 벨, 송미섭 옮김, 『교양교육의 개혁』, 민음사, 1994, 35~51면 참조

기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삶의 혜안을 위한 것이라는 인식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교양교육의 중요성을 함께 주창하면서 실제 과목 구성은 분과 학문의 개론 과목들로 안배하는 경우가 다반사인 우리의 대학은 교양교육을 전공교육의 입문 단계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교양교육에 대한 인식은 자유교육을 근간으로 출발한 구미(歐美)의 전통 있는 대학과 달리 서울대의 경우처럼 처음부터 분과 학문 체제의 대학 및 직업과 관련된 대학으로 구성된 종합대학교 체제를 도입한 때문이기도 하다. 현재 운영 중인 서울대학교의 기초교육원, 연세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의 학부대학 등은 종합대학교 체제 내에서 교양교육의 독자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모색이긴 하나 단과대학별로 원심력이 작용하는 종합대학교 내에서 어느 정도 구심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이다. 다시 말하면 학부가 하나의 대학으로 되어 있는 미국의 아이비 리그 대학들에서의 교양교육의 구심력과 학부가 여러 단과대학으로 나뉘어있는 우리 대학에서의 그것은 사실 비교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즉 한국 대학에서의 교양교육의 표류는 교양 교육을 주체적으로 수행할 주체의 부재 혹은 편중과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고, 이 점은 앞으로도 쉽게 해결될 성질이 아니라고 본다.

그런데,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학부를 이원적으로 보는 데 있다. 예컨대 1945년 이전 일본의 고등교육 제도는 고등학교 또는 대학 예과(豫科)를 거쳐 대학 본과로 진입하는 것이었는데, 일제강점기의 경성제국대학 역시 예과와 본과로 이루어졌었다. 예과의 교과 내용은 전공 과정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 해방 이후 미군정 주도로 서울대학교가 설립되어 예과와 본과 체제가 아닌 4년제 학부를 구성하고 필수교양과목을 설치했으나 여전히 학부 4년 과정을 예과와 본과 단계로 보는 인식은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⁵⁾ 그것이 제도적으로 나타난 사례가 서울대의 경우 역사적으로 보면 교양과정부 설치(1968~1974), 계열별 입학과 교양과정 이수 후 전공 진입 제도, 기초교육원 설치(2002~ 현재) 등등이라 할 수 있다. 교양과정과 전공 과정은 외국어교육의 경우처럼 위계적 관계를 맺는 부분도 있으나 직업교육(職業教育)이나 전문분과(專門分科)교육에 대하여 자유교육(liberal education)이나 일반교육(general education)의 관점에서는 위계적 관계를 맺지 않는다. 자유교육과 일반교육은 전공교육과 병행할 수 있고, 또 교양인으로서의 성숙은 대학 교육의 전 과정에서 추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학부에서의 교양교육과 전공교육이 별개의 교과과정이거나 전자가 후자의 예비과정에 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양교육의 기반 위에 전공교육이 특화되는 구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교양교육은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등의 분과 학문이 무엇을 하는 것인가를 알게 하는 개론 교육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 걸쳐서 인류가 쌓아온 주요한 사유(思惟)에 대해 이해하게 하고 논변하게 하는 교육을 지향해야 하고, 이 연장선상에서 전공교육이 특화되는 연속성을 구축해야 한다. 다음으로 교양교육은 인문학, 사회과학 및 자연과학 교육의 부산물이나 여기(餘技) 정도로 보는 인식을 불식해야 한다. 인간을 포함하여 다층적이면서 서로 연계된 세계를 이해하고, 통찰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각 학문 분야의 근본적인 물음에 학생들이 스스로 직면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교양교육으로서의 고전문학교육은 우선 국문학의 입문 교육의 성격을 가져서는 안 된다. 국문학 전공자를 위한 예비교육이 아닌

5) 이상의 경과에 대해서는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앞의 책, 13~28면 참조. 서울대학교에서 처음 부과한 필수교양과목으로 실제 개설된 교과목들은 인문학과 자연과학에 속하는 기초과목들이었다.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문학이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국문학 관련 지식을 넓히는 교육일 필요도 없다. 대학의 각 전공 분야가 무엇을 대상으로 어떤 방법으로 연구하며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은 대학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이라 할 수 있지만 이것이 교양의 본질에 속하지는 않는다. 대학이 대학원의 예비학교나 직업교육을 위한 기관이 아니며, 전문연구인력만을 양성하는 곳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교양교육으로서 고전문학교육은 고등교육인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갖추어야 할 삶과 세계에 대한 종합적인 통찰력을 기르는데 기여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2) 고등학교 교육과 대학 교양교육의 연속성과 차별성

자유교육(liberal education)의 이념과 함께 대학 교양교육의 성격 규정에서 흔히 등장하는 것이 일반교육(general education)의 이념이다. 대체로 자유교육이 직업(職業)교육과 대비되는 것이라면 일반교육은 전문(專門)교육과 대비되는 것으로 교양교육은 이 두 가지 교육을 포괄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자유교육은 최고의 가치를 매개로 한 도야(陶冶)를 통해 인간이 끝없이 향상할 수 있다는 이상주의적 정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면, 일반교육은 전인교육(全人教育)으로서 인간의 총체성을 지향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⁶⁾

인간의 총체적 향상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교양교육은 대학 학부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직업교육이 아닌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 교육은 기본적으로 교양교육에 속한다. 이 점에서 대학 교양교육은 고등학교 교육의 그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으며, 폭과 깊이 및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고등학교 교육과 대학 교양교육의 이러한 연속성은 두

6) 이 두 교육, 특히 후자가 추구하는 인간상은 유교문화권의 '君子不器'의 개념에 가깝다.

교육 과정의 역할 분담과 위계성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각각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음을 뜻한다. 예컨대 고등학교에서 달성한 교육을 대학에서 중복해서 한다거나, 고등학교에서 제대로 하지 못해서 대학에서 다시 하는 경우를 피해야 하며, 고등학교에서의 성취를 바탕으로 대학에서 심화 확대된 교양 교육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 분담을 제대로 하지 못해 수준의 향상이 없는 교육의 중복이 있어왔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작문과 수학이다. 전자의 경우 고등학교에서 마땅히 성취해야 할 수준의 교육을 거의 하지 않아 대학이 그 대부분을 떠맡고 있고, 후자의 경우는 고등학교에서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배우고 있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현재 한국의 고등학교는 내적으로는 대학의 체제를 도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7차 교육과정과 2007개정교육과정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까지를 국민공통교육과정으로 하고, 고등학교 2, 3학년은 선택과정으로 했는데, 2009개정교육과정에서는 아예 고등학교 전 과정을 선택과정으로 했다. 제7차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할 때, 국어 교과외의 경우, 화법, 독서, 작문, 문법, 문학 중에서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교육하게 하는 것인데, 사실 이 다섯 과목은 고등학교 수준에서 모두 다 교육해야 할 것들이고, 학습자의 진로나 적성이 여하하든 모두 필요한 것들이다. 사회 교과에 속한 역사, 윤리, 지리, 정치·경제·사회 등의 과목들도 마찬가지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한다고 할 때 국민으로서, 또 현대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세계와 삶에 대한 소양은 고등학교 교과를 골고루 학습해야 갖추어진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교육을 선택 교과 체제로 한 것은 진로 선택이라는 명분하에 고등학교 교육을 대학 예비 교육으로만 본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이러한 관점은 대학 교육을 전문교육으로 보는 관점과 이어진다. 나아가 이러한 고등학교 교육은 대학 교육과의 연계의 측면에서도 문제

가 있다. 대학의 교양교육은 일반교육(general education)을 지향하는데, 시민교육의 성격을 띠는 고등학교 교육은 오히려 전문 분과 체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고등학교, 특히 인문계 고등학교 교육을 대학 교육의 예비 단계로 보는 데 있다. 대학 교육을 전문대학원 교육의 예비 단계로 보는 것과 닮은 것이다. 이것은 대학 교육의 정체성과 함께 고등학교 교육의 정체성도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음을 말한다. 고등학교 교육 역시 대학 진학 여부와 관계없이 하나의 완결된 교육이어야 하며, 이 점에서 고등학교 졸업자가 인생을 살면서 대면하게 될 삶과 세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인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교양교육의 관점에서 고등학교 교육과 대학 교육의 연계는 동일한 교육의 반복 심화로 볼 수 있다. 고등학교 국어 과목과 문학 과목에서 학습하는 고전문학 작품들은 그대로 대학의 교양교육으로서의 고전문학교육의 대상 작품이 될 수 있으며, 작품을 대상으로 한 학습 내용 역시 반복 심화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고등학교와 대학의 교양교육의 연계는 반복 심화의 과정에서 수월성(秀越性)을 추구하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다.

고등학교 교육과 대학 교육의 연계가 중요한 또 다른 배경으로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생의 대학 진학률이 세계 최고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이 현상은 필요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대학 교육을 받고 있음을 뜻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고등학교 교육과 대학 교육의 연계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면 국민 전체의 전반적인 교양 수준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수 있는 긍정적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을 뜻하기도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대학교육은 대학별 편차가 있긴 하지만 대중교육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실질적으로는 기업의 맞춤형 교육 요구에 부응하는 직업교육에 경도되면

서 교양교육은 물론 전문교육조차도 제대로 못하는 실정이다. 그런가 하면 고등학교의 교육, 특히 문학교육은 작품 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교과서 위주의 교육이어서 파편적 교육의 상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교육과정상의 특정한 성취 기준과 관련하여 선정된 문학 중심으로 학습이 이루어지고, 그 성취 기준과 관련된 학습 기간도 단 기간이다. 나아가 시와 짧은 수필을 제외하고는 소설이나 희곡의 경우 작품의 일부만 교과서에 수록하여 부분 학습을 할 뿐 작품 전체를 읽고 토론하고 글로 비평하는 학습은 하지 않는다.⁷⁾ 다시 말하면 학습 목표와 학습 활동으로 둘러싸인 작품 이해여서 작품을 작품 그대로 읽고 작가의 창작 의도나 작품의 주제와 그 사상적 의미 등을 제대로 토론하는 활동은 불가능한 것이다.

이처럼 교과서 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1편의 고전작품 전체를 제재로 한 문학 향유 경험이 거의 없는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는데, 대학에서의 고전문학교육도 <한국고전문학의 이해>류의 개론적 접근이 이루어진다면 실제 작품을 대상으로 한 수월성 추구의 교양 교육은 실종될 수밖에 없다. 이 점에서 고등학교 국어 교육은 교과서 중심 교육에서 실제 고전적 작품, 예컨대 인문·사회·자연·예술 등의 고전을 읽고 토론하고 글쓰기를 하는 교육으로 전환해야 하며⁸⁾, 대학은 학생 선발에서 이러한 고등학교 교육을 유도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하고, 나아가 그러한 기반 위에서 교양교육으로서의 대학의 문학교육을 실천해야 한다.

7) 물론 이 문제는 고전문학교육에만 관련되는 것은 아니다. 문학 작품만이 아니라 여러 분야의 명작이나 고전을 직접 접하는 경험이 결여되어 있다.

8) 이에 대해서는 김종철, 「고등학교 국어 '심화선택' 체제 개편 방향」, 『국어교육』(131호), 한국어교육학회, 2010, 참조

3) 교양교육이 추구하는 인간상

교양교육의 정체성은 대학 교육으로 길러내고자 하는 인간상(人間像)과 결부되어 있다. 이 인간상은 대체적으로 고대에 형성된 이상적 인간상에 근대 이래 급격하게 전개되어온 세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거나 선도하는 능력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그 추구하는 인간상이 변천해왔다. 특히 사회 변화와 국제 관계의 확대와 재편, 그리고 자연과학의 발달이 영향을 끼쳐왔다. 이에 대응하여 전통적인 인문교육이 추구해온 인간의 여러 능력(사고 능력, 이해 능력, 판단 능력, 표현 능력, 덕성 등)이 이러한 세계의 변화 속에 더욱 요청된다는 것이 인문학 쪽의 견해이다.

교양교육이 인간만이 아니라 세계에 대한 전망도 내포한다는 것은 교양교육이 매우 실천적인 교육임을 뜻한다. 매슈 아놀드가 중간계급과 노동계급의 갈등 속에 빠진 19세기 중엽 영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책으로 중간계급의 교양 교육을 들고 나온 것이 그 한 예⁹⁾이고, C. P. 스노우가 과학혁명의 시대의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소통을 위한 교육을 주창한 것도 한 예가 된다.¹⁰⁾ 그런가 하면 제1차 세계 대전에 관여하게 된 미국의 명분을 선전, 교육하기 위한 <전쟁 문제> 강좌의 설치를 대학에 요구한 것에 대응하여 컬럼비아대학 교수진이 <평화 문제>를 다루는 강좌를 개설하여 이 두 강좌를 바탕으로 이른바 컬럼비아 대학의 교양 강좌 <현대문명 Contemporary Civilization>이 탄생된 것도 그러한 예라 할 수 있다.¹¹⁾ 2007학년도 컬럼비아 대학의 <현대문명> 강좌는 학부 학생들에게 필수로 부과되는 '핵심 과정(The Core Curriculum)'의 하나로서 현대 서구문명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인간들이 구축한

9) 윤지관, 『근대사회의 교양과 비평』, 창작과비평사, 1995., 제3장 참조

10) C. P. 스노우, 오영환 옮김, 『두 문화』, 민음사, 1996

11) 다니엘 벨, 송미섭 옮김, 앞의 책, 35~39면 참조

다양한 공동체들과 관련된 쟁점들과 이 공동체를 이끄는 가치들의 세계를 이해하게 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활동적이고 교양 있는 시민이 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¹²⁾

교양교육이 담당해야 할 이러한 인간상과 미래에 대한 전망과 관련해서 교양교육으로서의 고전문학교육의 지향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학생들이 살아야 할 세계는 지리적으로는 이미 지구상 전체 지역으로 확대되었고, 그 세계는 여러 문명권의 사람들과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바뀌고 있다. 또 세계의 여러 문명은 장구한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어서 단순히 입문적인 정보나 지식만으로는 세계 시민으로서 성장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우선 고전문학교육은 학생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확립하는 데 기여하는 교육이 될 필요가 있다. 세계 문명과의 교류에서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우리 고전문학은 주로 동아시아 문명의 산물로 사상적으로는 일반적으로 유교와 불교 및 무속 신앙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 동아시아의 문명은 외국의 많은 대학에서 하나의 독자적인 학문 영역으로 설정하고 있듯이 세계 문명의 하나로서 그 독자성을 인정받고 있다. 예외적이거나 특수한 무엇이 아니며 세계 문명의 일원으로서 그 위상이 분명한 것이다. 이 점에서 고전문학은 동아시아문명의 구체적 산물로 인식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교육의 관점에서는 학생들의 문명권적 정체성을 분명히 자각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예컨대 한 문문학은 동아시아 문명의 공동 양식에 기초하고 있고, 불교와 유교 사상을 배경으로 한 문학 역시 사상적으로 공동의 기반 위에 있으므로 이 작품들을 대상으로 근대 이전 동아시아라는 하나의 보편세계를 우리 선인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또 자기 삶의 세계로 삼았는가를 탐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12) Columbia Univ., *Columbia College Bulletin 2007-2008*, Columbia Univ. 2007., 65면

로 동아시아문명에 바탕으로 둔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세계 문명을 접하고, 세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게 하는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이다.

4) 지적 성찰의 방법과 태도

추구하는 인간상과 미래의 전망이 여하하든 실제 대학에서의 교양교육은 대학이 구축하고 있는 학문 기반을 벗어나지 못한다. 인간, 사회, 자연이라는 세 범주는 인간과 세계를 구획하는 기본 범주로 자리 잡고 있고, 대학의 모든 학문은 이들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20세기 국제 관계의 변화와 전쟁, 인종 갈등, 과학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그로 인한 사회와 삶의 변화 등등은 인간, 사회, 자연을 주로 다루는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의 과제로 범주화하여 접근할 수 있다. 기왕에 대학이 크게 이 세 범주의 학문과 그 응용 분야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거나 그 변화를 주도해 왔기 때문에 대학이 제공할 수 있는 교양과목 역시 이러한 기반 위에 설 때 보다 튼실한 교육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또 교육 일반이 그렇듯이 모든 사상을 다 섭렵하는 교육이 불가능하고, 또 개별 사태에 적용할 수 있는 원리의 학습이 가장 효과적인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이러한 범주화는 타당성이 있다.

자유교육과 일반교육을 교양교육의 두 축으로 볼 때 실제 대학에서 개설하는 과목은 일반교육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특정한 전문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세계 전반에 대한 폭 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분석 능력, 종합 능력, 판단 능력 등을 기른다고 할 때 실제 과목은 일반교육의 차원에서 설정하고, 교육의 실제에서는 자유교육을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한 구성일 수 있다. 그런데, 교양교육이 대학의 여러 분과 학문의 입문이 아니고, 또

여러 분과 학문의 방법을 두루 섭렵하는 것이 아닌 한, 지적 탐색의 일반적인 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즉 학문 영역별로 설정된 과목이 아니라 인간과 세계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목표로 한 주제별 과목에서는 특정한 학문 방법론에 국한되지 않는 인간의 일반적인 지적 활동에 적합한 탐구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를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은 교양교육을 통해 전공을 불문하고 모든 학생들이 획득해야 할 ‘공통의 언어’와 ‘공통의 기술’이라 했다.¹³⁾ 이 공통의 언어와 기술을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컬럼비아대학의 교양교육의 ‘핵심과정’은 관찰, 분석, 논변, 상상적 비교 등의 방법적 기술과 세상의 다양한 생각들, 생각과 의미의 미묘한 차이, 그리고 서로 다름 등을 존중하는 태도라고 했다.¹⁴⁾ 즉 고정되어 있지 않고 항상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새로운 현상과 사태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고하여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과 다른 생각, 다른 가치관 등을 존중하고 공존하려는 태도를 점점 다원화되어가는 세계 속에서 지성인이 모두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로 본 것이다.

교양교육으로서의 고전문학교육 역시 이와 같은 지적 탐구 방법과 태도를 익히고 함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한국 고전문학에 이러한 작풍이 있고, 그 세계는 어떠하다는 설명이 아니라 인간과 삶, 그리

13) 『Princeton is committed to offering an academic program that allows each students to achieve a truly liberal education. Although each department and school has its own requirements, the University requirements for graduation transcend the boundaries of specialization and provide all students with a common language and common skills.』, Princeton Univ., *Undergraduate Announcement 2007-08*, Princeton Univ., 2007, 52면

14) 『The skills and habits honed by the Core - observation, analysis, argument, imaginative comparison, respect for ideas, nuances, and differences - provide a rigorous preparation for life as an intelligent citizen in today's complex and changing world.』, Columbia Univ., 앞의 책, 64면

고 세계에 대한 본질적 물음을 이끌어내는 것이어야 하고, 학생들이 이 물음과 관련하여 관찰, 분석, 비교, 논변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것은 교양교육이 학생들이 직접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과 활동 자체에 중점을 두어야 함을 뜻한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작품에서 현재의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주요 요인들과 관련된 의제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3. 대학 교양교육 과목으로서의 한국고전문학교육의 과제

1) 정전(正典)을 위한 작업

교양 교육이 최상의 것을 제재로 하여 인간을 도야한다는 관점에 설 때 우리 고전문학에서 이름 그대로 ‘고전(古典, classic)’이 성립되었는가를 먼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근대에 들어오면서 중세의 한문문화권, 유교문화권, 불교문화권의 공통 고전은 제도 교육에서 밀려나고, 대신 문학의 경우 민족문학이 그 자리에 들어왔다. 중세의 문학 교육은 궁극적으로는 한시(漢詩)와 한문(漢文)의 창작 교육에 중점을 두었는데, 한문문화권의 공통 고전인 <시경(詩經)>의 경우처럼 작품집이 그대로 교과이자 교재의 역할을 한 것은 명실상부하게 고전(古典)이면서 동시에 정전(正典)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차지했었다. 이에 비해 근대의 문학교육은 초·중등교육의 경우 국어 교과의 한 영역으로 자리 잡으면서 창작 교육은 약화되고 이해 교육 중심이 되었고, 주로 민족문학 작품들이 제재로 선정되어왔지만 이 작품들이 고전은 물론 정전의 지위조차 제대로 확보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상황은 서양의 공인된 고전들을 중심으로 한 인문 교양교육과 비교할 때 제반 여건이 불비함을 말해준다. 그렇다면 구미의 대부분의 대

학이 서구의 공동 고전을 대상으로 삼는 것을 본받아 중세 동아시아의 공동 고전을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 이렇게 한다고 하여도 중세의 고전들은 대부분 철학과 역사 분야에 속하고 문학의 경우 널리 잡아도 <시경>, <초사(楚辭)>, <두시(杜詩)>, <당송팔대가(唐宋八大家)> 등을 벗어나지 못하고 서사와 극의 경우에는 인기 작품들은 있었어도 당시 문화 관념에서 고전으로 평가를 받은 것은 없었으니 결국 그 목록은 그다지 풍부하지 못하게 된다. 게다가 근대화 과정에서 동양 삼국은 상호 침략과 전쟁을 거치게 되었고, 공동의 문명보다는 각각의 민족문화를 주창하면서 중세까지의 공동 고전은 학교 교육에서 자리 잡지 못하게 되었다. 문명권으로서 동아시아의 새로운 지역적 연대가 확보되지 않는 한 동아시아 공동 고전의 형성 혹은 회복 역시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다면 교양교육의 대상으로서 민족문학의 정전 및 고전을 확보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고, 이것은 고전문학계가 앞장서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주지하다시피 1920년대 이래 구비문학, 국문문학, 한문문학 등 국문학의 제영역이 널리 연구되어 현재 방대한 성과가 축적되었지만 민족문학의 고전으로 학계 및 우리 민족 전체의 동의를 받은 작품 목록은 분명하지 않다. 특정한 작품이 고전으로 정립되는 과정은 여러 경로이겠으나 독자 대중의 지속적인 수용과 비평적 평가, 학문적 연구 등이 결합되어야 한다고 보면 현재 이를 충족하는 작품의 목록은 그다지 많지 않다. 물론 중등교육과 대학 교양교육에서 널리, 그리고 반복적으로 채택된 작품들, 다시 말해 교육적 정전의 목록은 가능하다. 그렇지만 이 정전의 목록 역시 국문학 연구 초창기에 주목을 받은 작품들과 작가들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중등 국어 교과서의 제재로 제일 먼저 선정된 <심청전>을 비롯한 <춘향전>, <홍부전>, <토끼전>, <홍길동전>, <구운몽>, <허생전> 등의 소설과 <관동별곡>을 비롯한 가사 몇 편, 그리고 윤선도

등의 시조 작품들이 그 실례들인데, 이들은 중등 교과서에 지속적으로 수록되어 온 기득권을 바탕으로 대중적 인지도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1970년대 이후 국문학 연구를 통해 새롭게 평가된 좋은 작품들은 중등 교과서의 제재로 수록될 기회를 얻지 못해 널리 알려지지 않고 있다.

물론 이러한 정전의 구성과 고전의 확립은 손쉬운 일이 아니다. 근·현대문학 및 외국문학의 향유가 고전문학의 향유보다 압도적으로 우세한 상황이어서 자연스런 상황에서 정전과 고전의 목록이 작성되기는 어렵다. 오히려 학계의 판단과 대학 교양교육에 적용해보는 과정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작품들을 중심으로 정전의 목록이 작성되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다. 요컨대 대학의 교양교육의 제재로 삼을 만한 정전의 목록을 작성하는 일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인 것은 틀림없다.

2) 의제(議題)의 특수성과 보편성 확보

국문학 연구의 시작이 자산(自山) 안확(安廓) 이래 민족주의적 경향을 보여 온 것은 주지의 일이다. 초창기 국문학계에서 벌어진 바 한문문학이 국문학 영역에 속하느냐의 논란이 이를 잘 말해준다. 서구 중심의 근대화에 맞서 민족의 고유성 내지 특수성을 문학의 차원에서 밝히는 것과 근대화의 내재적 동인을 문학에서 찾는 작업이 병행된 것도 거시적으로 보면 민족주의적 연구의 일환이다. 이러한 민족주의적 연구는 그 나름의 역사적 소임을 다했다고 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일정하게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국문학이 세계문학의 일원으로서 세계 여러 나라의 학자들의 관심사가 되기 위해서는 보편성과 특수성의 균형 잡힌 시각으로 국문학을 연구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교양교육의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중세의 교양인이 중세 문명권의 교양인을 지향한 것처럼 근대 이래

의 교양인은 세계 전체 차원의 교양인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 세계 전체 차원의 교양이란 일정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보편성이란 것도 합의된 무엇이 아니다. 하나의 특수성의 범주를 넘어서 다른 특수성과의 대화를 통해 제3의 무엇을 모색하는 활동이 요청된다는 뜻이다.¹⁵⁾

거시적으로 보면 민족문학으로서의 고전문학은 특정 문명권의 지방문학이지만 이 지방문학은 고립적이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든 문명권의 시대 정신이나 그 시대의 제문제와 직·간접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문명권의 고급 문명의 혜택을 가장 적게 받은 민중문학도 문명권의 보편적 문제를 뛰어넘어 형상화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고전문학을 보편성과 특수성의 복합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재단된 가치를 재평가하고, 나아가 외국의 여러 사례들과 두루 비교하는 작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첫째는 교양교육으로서의 고전문학교육에서 구체적이고도 보편적인 물음을 제기하고 답을 모색하며, 동시에 첨단적이면서도 근원적인 물음을 제기하고 그 답을 모색하는 교육을 할 수 있어야 하며, 둘째는 우리의 고전을 민족의 고전에서 세계 고전의 반열에 올릴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이 세계 고전의 반열에 올리는 일은 쉽지도 않지만 또한 민족주의적 열의에서 추진할 일은 아니다. 이것은 오히려 역으로 기존의 인류의 고전으로 평가받는 작품들 - 그것이 서구 중심이든 아니든 -에서 다루어진 의제들을 우리의 고전에 적용해 보는 일일 수 있다. 이러한 시험을 통해 우리 고전의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고전의 교육적 역할을 증대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고전문학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주의 문제를 다

15) 이와 관련해서는 황중연, 「탕아(蕩兒)를 위한 국문학 - 교양교육으로서의 국어국문학-」, 『국어국문학』(127), 국어국문학회, 2000., 44~48면 참조

룬 외국문학과 비교하는 작업이 고전문학연구에서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이 보편적이고 무엇이 특수한지는 비교해보아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고전문학이 당대의 문제에 대응하면서 취했던 질문의 방식이나 해결의 방식을 오늘날의 그것과 비교하는 역사적 비교의 방법도 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고전 작품에서 교양 강의에 적합한 보편성과 특수성을 갖춘 의제(議題)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3) 시민문화의 형성 지향

새삼스러운 언급이지만 대학에서의 고전교육은 고전을 보급하는 차원의 교육이 아니다. 민족과 인류의 영원한 정신적 자산인 고전의 새로운 해석을 통해 지혜를 얻고 지적 세련을 경험하는 일이 고전교육의 본령이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中等교육에서의 고전교육은 고전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이라면 대학의 교양교육으로서의 고전교육은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거나, 또는 고전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해나가는 과정을 추체험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대학 교양교육으로서의 고전문학교육 역시 이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

특히 교양교육으로서 고전문학교육이 주력해야 할 점은 대학생들이 고전문학의 학습을 통해서 깨닫는 즐거움을 체험케 하고, 이 체험을 생애를 거치면서 반복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 점을 특히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 사회가 민족문화의 향유를 삶의 주요한 활동으로 삼고 있는 집단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서구 문화의 압도적 우세 속에 전통문화는 여전히 보존의 차원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고, 학교 교육에서도 서구 문화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전문학은 우리 사회의 가치 논쟁의 준거가 되지 못하고, 새로운 문화 창조에서도 중심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기본적으로 자국의 고전에서 정신적 자양을 찾고 이를 하나의 문화로 삼는 집단의 부재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세계화 시대가 아니더라도 세계의 고전을 수용하는 일은 필요하고 당연한 일이지만 그 수용의 주체를 뒷받침하는 자국의 문화적 전통이 확립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대부분이 대학에 진학하는 현실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교양교육으로서의 고전문학교육이 학생들에게 지적 세련의 체험을 가능하게 하고, 깨닫는 즐거움을 체험케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민족문화 향유를 삶의 주요 활동으로 삼는 집단의 형성과 깊은 관련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하히 이들에게 삶과 세계에 대한 통찰의 계기를 갖게 할 수 있는가는 개별 담당 교수들의 몫이지만 고전문학교육이 이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시민문화의 형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작금 국문학계에서 활발하게 논의된 바 있는 인문학 위기 해소 차원의 여러 방책들과 교양교육은 일정한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 예컨대 인문학으로서 국문학의 주요 성과가 널리 보급되어 대중의 지적 세련을 돕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교양교육이 이런 차원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본다. 교양교육으로서의 고전문학교육은 연구자의 연구 결과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지적 탐구의 주체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고전문학의 문화산업적 가치 탐색을 중심으로 한 논의 역시 교양교육과는 거리가 있다. 고전문학 자체의 생산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고전문학교육을 통한 학습자의 인식 능력, 판단 능력 및 창조 능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대학 교양교육으로서의 고전문학교육은 중등학교의 고전문학교육과 고전문학 연구 성과의 대중화 및 고전문학의 문화산업적 가치 발굴 등과는 노선이 다른 것이다.

고전문학교육이 가야 할 노선은 고전문학을 통해 깨닫는 즐거움을 얻는 사람들을 배출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문화 담당층을 형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¹⁶⁾

4) 국어로 성찰하고 글쓰기

일반적으로 대학 교양교육의 과목 중에는 외국어교육과 자국어 작문교육이 포함되어 있다. 외국어교육은 세계 시민으로서 성장하는데 필요한 것이라면 자국어로 작문교육을 하는 것은 자국어로 지적 능력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나아가 지적 실천을 주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것은 자국어가 학문의 언어임을 전제로 한다. 한국의 대학에서 교양 교육을 하는 주요한 목적 중의 하나도 한국어로 지적 성찰을 할 수 있는 교양인을 기르는 것이다. 근래 강화되고 있는 대학의 글쓰기 교육이 그 일환이라 할 수 있지만 이 점이 분명히 표방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근대 국가의 수립과 이 국가의 발전에 기여하는 근대 대학의 설립은 세계 차원의 보편적인 진리 추구에 대해 자국 차원에서 기여하고 동시에 세계의 여러 학문 성과를 자국 차원에서 해석 수용하려는 것이다. 여기에는 필연적으로 자국의 언어가 학문의 언어로 발전하는 것이 요청된다. 이러한 요청에 부응하여 자국의 언어로 학문하는 능력을 기본적으로 기르는 과정은 교양교육 과정이다. 어느 분야를 전공하던 자기의 모국어로 질문하고 답하며, 그것을 개념화하는 학습을 교양교육에서 해야 한다. 현재 대학의 국어교육이 이러한 역사적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반성해야 할 점이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¹⁷⁾

16) 김종철, 「대학 교양교육으로서의 문학교육의 방향」, 『문학교육학』(10호), 한국문학교육학회, 2002.에서 교양으로서의 문학교육이 성인의 문학 생활화를 이루고 이를 통해 문학 수용 주도층을 형성하는 전망을 한 바 있다.

교양교육으로서 고전문학교육에서 글쓰기를 강조하는 것은 이러한 대학 국어교육의 과제의 연장선상에 서는 것이면서 또한 그것만의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고전문학 중 한문문학을 제외한 구비문학과 국문문학은 국어가 생활어의 역할을 주로 담당할 때 창작된 것들이다. 당시 학문의 언어 역할을 했던 한문을 구사한 지식인들은 구비문학과 국문문학을 대상으로 학문 활동을 하지 않았으므로 구비문학과 국문문학을 대상으로 한 교양교육에서 지적 성찰의 언어는 오로지 현대의 한국어일 수밖에 없다. 이들 작품에서 무엇인가를 의제(議題)로 삼고, 그것을 개념화하고 보편적인 논의를 위한 사고 도구어들을 마련하는 것은 오로지 실제 작품의 언어와의 끊임없는 대면에서만 가능하다. 이처럼 생활어로 이루어진 작품에서 지적 성찰의 매개 역할을 하는 개념어를 추출하거나 생산하는 일은 고전문학교육의 주요한 기여가 될 수 있다. 이는 한국어가 지적 창조의 언어로 발전해야 하는 역사적 과제만이 아니라 민족문학인 고전문학이 인류의 문학적 자산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보편성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과제에 비추어보면 특히 중요한 교육적 실천이라 할 수 있다.

4. 결론

대학 교양교육으로서의 고전문학교육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민족문학을 보편성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동아시아 문명권에서 공인되어 온 고전문학을 오늘날 대학의 교양교육의 고전으로 계승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동시에 민족어로 된 우리의 고전문학이 근대 이전에는 ‘고전’으

17) 김종철, 「학문과 국어교육」, 『국어교육』(122호), 한국어교육학회, 2007.에서 학문의 언어를 위한 국어교육에 대한 논의를 한 바 있다.

로 평가받지 못한 존재들이라는 점, 나아가 고전문학이 근대 학문의 대상으로 된 지 1세기 가까이 되어가지만 민족문학의 고전, 또는 정전 목록 작성에까지 도달하지 못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대학 교양교육으로서의 고전문학교육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이러한 과제들과 함께 교양교육으로서의 고전문학교육은 고등학교 문학교육에서의 고전문학교육의 성격과 근래의 인문학 위기와 관련한 국문학 성과의 보급이나 문화산업적 가치의 발견과는 다른 교양인의 도야라는 교양교육 본래의 길을 모색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과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대학의 차원에서는 대학 학부 교육의 정체성을 분명히 확립해야 하고, 문화 정책적 차원에서는 대학 교양교육으로서의 고전문학교육이 전통문화를 중심으로 한 우리 사회의 교양인 집단을 형성하는 거시적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영한, 『서양의 대학 : 역사와 이념』, 이기백 편, 『한국사시민강좌』, 일조각, 1996
- 김정오 외, 『지성·덕성·리더십 함양을 위한 대학교양교육 개선 방안』,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 김종철, 『대학 교양교육으로서의 문학교육의 방향』, 『문학교육학』(10호), 한국문학교육학회, 2002
- 김종철, 『학문과 국어교육』, 『국어교육』(122호), 한국어교육학회, 2007
-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교양교육 60년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8
- 서울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영국·독일·프랑스의 교육제도와 교양교육 현황』, 서울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3
- 서울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프랑스의 대학교육 - 교과과정과 교양교육』, 서울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5
- 서울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일본의 고등교육 - 교양교육과 전문교육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5

- 윤지관, 『근대사회의 교양과 비평 - 매슈 아놀드 연구』, 창작과비평사, 1995
- 장희의 외, 『교양교육의 개선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1995
- 최미리, 『미국과 한국 대학의 교양교육 비교』, 양서원, 2001
- 최재서 편, 『교양론』, 박영사, 1963, 40~49면
- 황종연, 『탕아(蕩兒)를 위한 국문학 - 교양교육으로서의 국어국문학-』, 『국어국문학』 (127), 국어국문학회, 2000., 44~48면
- 다니엘 벨, 송미섭 옮김, 『교양교육의 개혁』, 민음사, 1994., 35~39면
- H. 그룬트만, 이광주 역, 『중세대학의 기원』, 탐구당, 1982
- Columbia Univ., *Columbia College Bulletin 2007-2008*, Columbia Univ. 2007., 65면
- Princeton Univ., *Undergraduate Announcement 2007-08*, Princeton Univ., 2007., 52면

ABSTRACT

Teaching Korean Premodern Literature as a General Education in University

Kim, Jong-cheol*

Teaching Korean premodern literature as a general education in university has several tasks as follows :

1. To select classics and canons from Korean premodern works. There are lots of premodern literary works but only several works are recognized as classics or canons.

2. To provide topics and develop them to the universal level. Research into Korean literature has been oriented toward nationalism, so teaching Korean premodern literature as a general education should go beyond the horizon of nationalism and reach the universal sphere.

3. To contribute toward the formation of the cultured circles. Eighty percent of high school students go on to college, so teaching classics can make contribution to form well-educated classes to lead the culture of civil society.

4. To write in Korean the results of analysis, comparison, assessment, and argument on the topics from the classics or canons. Writing in Korean in the Korean academic circles has the historical task to develop Korean as an academic language. If students could derive ideas from works written in everyday language and conceptualize them, then students can contribute to develop Korean as an academic language.

Key Words University, General Education, Classic, Korean Premodern Literature, Universality

논문투고일 : 2010. 10. 15

심사완료일 : 2010. 11. 26

게재확정일 : 2010. 12. 3

* Seoul National University